



화 가 윤석남(尹錫男, 56세)과 사진작가 박영숙(朴英淑, 54세), 이 두 여성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

이미 50대 중반에 접어들어 이 두 여성은 여성미술 공동작업을 하며 자매애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 실천에 있어 자유스럽고 실험적이라는 데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최첨단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시작한 것은 '여성미술 전(展)'의 시발이 된 지난 1988년의 '반에서 하나로 전(展)'에서부터다. 이후 매년 여성문제를 그림으로 풀어 온 이들이 함께 작업한 공동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2년 제 6회 '여성과 현실 전(展)'에 출품한 '주부 윤영숙의 하루', 1994년 '여성, 그 다름과 힘 전(展)'에 출품한 '하늘 어머니의 창조 이야기' 등이다.

성차별과 여성상이라는 페미니즘의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들은 직설적인 고발의 단계를 벗어나 미학적 접근법을 취하며 여성미술 운동의 승화,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미술 운동의 승화, 발전에 기여한 두 사람

그들이 제 6회 '여성과 현실 전(展)'에 출품한 '자화상'을 공동작업하게 된 계기는 광고로써도 문형 잘려 나간 박영숙 씨의 한 쪽 유방 때문이었다. 유방암을 앓아 한 쪽 유방 절제술을 받은 박 씨는 '없는' 유방을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한 쪽 유방의 함몰 부위에 수건을 늘어뜨려 가리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화가 윤석남 씨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해 상처를 드러내고 직면하도록 격려했다.

아직까지 여성 누드란 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표현돼 왔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관능적인 젖가슴의 굴곡, 풍만한 넓적다리와 복부, 엉덩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상반신을 누드로 찍은 박 씨의 사진 작품 '자화상'은 여성 누드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을 무참하게 배반한다. 한 쪽이 잘려

나간 가슴, 넓은 근육질의 어깨, 굵은 허리 등 50대 여성의 육체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윤 씨는 박 씨의 자화상 사진에 목조 상징물을 만들어 드러낸 한 쪽 가슴에 전깃불을 달았다. 유방의 상실을 내면의 빛이 나오게 된 발전의 계기로 뒤집어 해석한 윤 씨의 작품 의도는 수동적인 성(性)의 대상으로 축소되었던 여성의 육체에 인간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여성의 인간선언적 성격을 지닌다.

박 씨가 사진으로 여성 육체의 '현실'을 드러냈다면, 윤 씨는 여성적 '치유' 개념을 도입, 온전한 여성을 표현함으로써 두 사람은 여성 공동의 '자화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두 사람의 공동작품 '자화상'은 여성적인 형상과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여성미술가들 사이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여성미술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물려 있던 여성들의 표현양식 발굴코자

또 1994년 '여성, 그 다름과 힘 전(展)'에 출품된 공동작품 '하늘 어머니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부분을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어머니의 창조로 바꿔 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객들을 모두 태아가 되어 모체로 귀의토록 초대한다. 여성의 성기 모양을 누비이불처럼 만든 문(윤석남 작)을 찢히고 안으로 들어 가면 마치 자궁의 입구와 같은 긴 통로가 나온다. 이 터널을 통과하면 엄마의 자궁 속처럼 깊고 어둡고 따뜻한 방이 나온다. 벽에는 여성의 창조를 표현한 영상 이미지가 슬라이드 사진(박영숙 작)으로 비쳐



지고, 원시적이며 근원적인 소리가 신음, 속삭임, 허밍, 울부짖음 등 말이 아닌 소리로만 어머니의 창조를 표현한다.

방법과 내용성에 있어서 승화된 형태의 여성주의 미술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윤석남 씨는, "과거부터 여자들이 바느질이나 다듬이질 등 살림하면서 만들어 낸 생활용품들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예술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물려진 여성들의 표현양식을 발굴하고 되찾아 재창조하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한다.

뒤늦게 그림을 시작, 40대 때 첫개인전을 가졌던 윤석남 씨는 뉴욕 프랫대에서 판화와 드로잉을 공부했으며, 여성미술 연구회, 현실문화연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씨는 "어머니의 사진첩"이라는 설치미술작품을 가지고 6월6일부터 4개월간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로 참가한다.

또 숙명여대에서 사진반 '숙미회'를 창설하는 등 대학시절부터 사진작업을 해 온 박영숙 씨는 숙대 산업대학원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신구전문대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류숙렬 · 문화일보 출판국



왼쪽 위/ 윤석남 씨(왼쪽)와 박영숙 씨(오른쪽)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육체의 '현실'과 여성적 '치유'의 개념을 도입한 공동작품 '자화상' 위·가운데·왼쪽 아래/ 제 7회 '여성과 현실 전(展)'에 출품된 '주부 윤영숙의 하루'는 50대 평범한 주부의 하루를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날 하루와 자신에 대한 회의론으로 지 항쟁을 알고 있는 우리 사회 중년 주부들의 문제를 표현했다.

화가 윤석남과 사진작가 박영숙



한국의 여성

